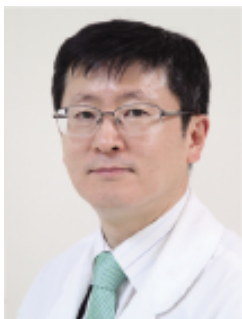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구병수 교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 등록



한방신경정신과 구병수 교수는 '생약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로 특허 등록을 받았다.

이번 특허는 한의학에서 중요시 하는 향기 위주의 약제가 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불교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백단향과 뇌로 혈류를 상승하는 한약을 중심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특허를 받은 것에 의미가 있으며, 식약청에서 IND승인까지 받았다. 구병수 교수는 이번 연구 외에도 치매, 건망증 등 뇌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02 외부 영상을 갖고 오셨다면 '외부영상등록서비스'를 신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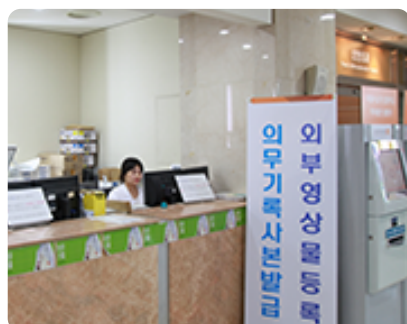
의무기록실에서는 외래진료를 보기 전 타병원에서 가져온 외부영상을 먼저 등록하는 '외부영상등록서비스'를 7월 17일부터 시행했다.

외부영상등록서비스는 환자들의 진료대기 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영상물 확인과 진료가 이루어져 진료 시 불필요한 시간 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영상 등록은 외래 접수 1번 창구에서 시행하며, 진료 전 PACS에 올라간 외부영상은 30일간 조회가 가능하다.

▶외부 영상 등록 업무 flow

원무팀(접수) → 의무기록실 외부영상등록(1번 창구) → 진료과



03 프리셉터 힐링캠프 '~with preceptor' 실시

간호부는 5월 1일 발령 신입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한 프리셉터를 위해 '베이킹 클래스'의 주제로 프리셉터 힐링캠프를 7월 31일 실시했다.

이날 프리셉터들은 식사동에 위치한 미오쓰르테 공방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쿠키를 직접 굽고, 케익을 만들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처음과는 달리 프리셉터들은 능숙하게 베이킹을 하며 '고소한 빵내음'과 '달달한 향기'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월희 간호부장은 "언제나 열정적으로 프리셉터를 교육하는 프리셉터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프리셉터 힐링캠프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리셉터란 신규간호사들이 병원업무와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일대일로 교육하는 경력이 풍부한 간호사를 뜻한다.



04 2015년 하계 선택지원 실습 시행

간호부는 2016년 우리 병원에 취업을 희망하는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15일까지 선택지원 실습을 시행했다.

하계 선택지원 실습 서류전형에 합격한 간호학생들은 간호 단위에 배치되어 프리셉터쉽을 이용한 교육과 현장 임상실무 적응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 20명 전원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곽월희 간호부장은 "선택지원 실습 기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누구보다 열정이 가득한 간호사가 되어 2016년 동국대학교병원 신입간호사로 만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2015년 하계 선택지원 실습은 본원에서 간호학과 실습을 진행하는 동국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경북대학교, 신한대학교, 총 4개 학교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했다.



주인공 32호

약제팀 파트장

김미경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으로 의료봉사를 가면 언제나 만나게 되는 김미경 약사님을 추천합니다.

항상 밝은 미소와 애교스런 목소리로 인사해 주시는 약사님을 마주할 때면 아침 이슬처럼 순수하고 맑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참이슬을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는 풍문이...^^)

저는 우연히 참여한 의료봉사에서 봉사를 통한 보람과 행복감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지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유를 약사님은 예전부터 알고 있으셨나 봅니다. 봉사가 필요한 곳이면 항상 먼저 가 계셨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느꼈습니다.

'어머! 여기서 또 뵈네요. ㅎㅎ'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오고가는 눈빛 속에서 친근함과 다정다감함을 느낄 수 있는 김미경 약사님. 과연 연우회 봉사부 차장이기에 의료봉사를 많이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엔 마음을 다하는 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기에 봉사부 차장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다운 행복은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을 실천하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그대~

김미경 약사님이야말로 진정한 봉사의 여왕입니다.

소화기병센터 검사실 신현모